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0. 01.(목) 11:00
(지면) 2026. 10. 02.(금) 조간 배포 2026. 10. 01.(목) 06:00

올해 최고의 해수욕장은 경포, 광안리, 대천!

- 해수부, 안전관리·바가지요금·신규 콘텐츠 등 평가로 우수 해수욕장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올여름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휴식처를 제공한 강릉 경포 해수욕장,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보령 대천 해수욕장(가나다 순) 3개소를 ‘2026년 우수 해수욕장’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여름 각 해수욕장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강화, ▲텐트 알 박기 및 바가지요금 근절로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 질서 확립, ▲다양하고 특화된 콘텐츠 도입, ▲이용자 만족도 등을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의 대면 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선정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정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각각 1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1. 24시간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인명피해 제로화(Zero) 달성

올해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3개소는 무엇보다 안전한 바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기조 아래 현장 안전관리 대응 능력을 대폭 끌어올렸다.

경포 해수욕장은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신규로 배치하여 위급 시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한편, 수상 안전요원 72명을 투입해 철저한 수난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망루대를 추가 배치하고 폐장 후에도 9월 1일(화)부터 13일(일)까지 안전요원 근무를 연장하여 단 한 건의 물놀이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대천 해수욕장은 안전관리 요원을 전년 대비 15% 늘어난 92명을 배치하고, 24시간 3교대 순환근무 체계를 가동했다. 또한, 드론 및 CCTV 통합 관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심야 시간대 입욕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구명조끼 무료 대여 1,503건 등을

통해 입수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3개 해수욕장 모두 개장 기간 중 사망사고 제로화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표준가격제 실시 및 부당요금 근절로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

피서지의 해묵은 문제였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높게 평가받았다.

경포 해수욕장은 파라솔, 튜브, 야영장 등 주요 대여 품목의 요금을 백사장 주요 진입로와 온라인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표준 가격제(정찰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물가 안정 대책상환 실’ 및 ‘가격표시제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요금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정부24 누리집과 네이버 플레이스 등에 대여 품목의 가격을 공시하고 현장에서도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했다. 대천 해수욕장은 백사장 내 바가지요금 및 부당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표준가격제를 실시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하였으며, 평상시보다 3배 많은 23명의 질서계도 인력을 투입하여 피서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3. 무분별한 불법 적치물 및 ‘알 박기’ 근절로 쾌적한 공간 이용 질서 확립

백사장 내 무단 텐트 설치와 알 박기 물품, 불법 노점상 행위 등에 대해서도 근절을 위한 단속이 이루어졌다. 백사장과 공영주차장 일원의 불법 적치물을 적기 조치하고, 야영 및 취사 행위를 통제하여 모든 방문객이 공평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포 해수욕장은 백사장이나 주차장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텐트와 캠핑용품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했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개인 파라솔과 그늘막 허용 구역을 지정하고, 그 외 구역에서의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다. 대천 해수욕장은 개장 전 알 박기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 빈번한 위반 구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4.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와 압도적인 이용자 만족도

단순히 머물다 가는 공간을 넘어, 국민이 즐겁고 건강하게 체류할 수 있는 특화 콘텐츠도 빛을 발했다.

경포 해수욕장은 오리바위 다이빙대 명소화, 플로팅 브리지, 대형 워터 슬라이드 및 해수 풀장 운영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의 큰 호응을 이끌었으며, 성수기인 7월 25일(토)부터 8월 8일(토)까지 15일간 야간 개장을 실시해 피서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상설 드론 쇼와 레이저쇼를 통해 해수욕장 야간 경관의 매력을 뽐냈으며, 스탠딩 패들보드(SUP) 체험 프로그램, 어방축제 연계 개최 등 해양 문화·관광 콘텐츠를 결합하여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지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대천 해수욕장은 펫비치 공간 분리 운영, 해변 모래 놀이터 조성 및 보령머드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계속 찾고 싶은 체류형 해양관광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에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해수욕장들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등 노력을 다해 온 결과, 올해 해수욕장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평균 발생 건수인 9.3명 대비 25% 감소했으며, 이용객 만족도는 83.3%로 작년 대비 5%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강화, 표준가격제와 알박기 관리 등을 한발 앞서 세심하게 시행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은 3곳의 우수 해수욕장에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성열산 (051-773-5250)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자	사무관	정경수 (051-773-5253)

참 고

우수 해수욕장 사진 자료

【경포 해수욕장】



오리바위 다이빙대



백사장 내 물놀이 시설

【광안리 해수욕장】



드론×레이저쇼 상설 공연 확대



무장애 해수욕장 조성

【대천 해수욕장】



구멍조끼 무료 대여소 운영



펫비치 공간 조성·운영